

홀리오 FINA 회장 발표에 서로 일사안고 '광~주' 연호

〈국제수영연맹〉

광주 유치 확정 ... 환호의 순간

체육계·지역민 "광주·수영발전 계기되길"

지난 19일 낮 12시 30분(현지 시각)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도시 발표장소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수영경기장 내 메인 콘퍼런스룸에는 '광주'를 연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다.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가 광주로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홀리오 FINA회장이 개최지 발표를 위해 하얀색 종이봉투를 들어올리자 일순간 적막이 흘렀다. 홀리오 회장은 다소 긴장한 듯 잠시 땀을 흘리며 영문으로 'Gwangju'가 적힌 하얀색 종이를 꺼내들며 '광주, 코리아'를 외쳤다.

숨소리조차 참아가며 홀리오 회장의 일말을 주시했던 광주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은 100여 명이 환호성을 질렀고,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서로 일사안고 '광~주'를 연

호했다.

이날 콘퍼런스룸에는 유치위원장이던 강준호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해자, 임내현, 김재운 국회의원, 이기홍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수영대회 유치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광주에서 도착한 100여 명의 응원단이 함께했다.

같은 시각 광주시청 옆 문화광장에 서도 광주시민 3000여 명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일부 시민들은 현장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유치성공 소식을 자신들에게 알리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광주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PT)에서 호평을 받기는 했지만, 이날 PT가 열리기 5시간 전 국내에서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의향서' 공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최 선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이 감돌았다. 헝가리는 총리까지 유치 현장에 지원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대회에서 정부의 지원 의사가 높은 점수를 준다는 점에서 광주로서는 최대의 악재가 작용한 셈이다.

다행히 FINA집행위원들은 이 같은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집행위원회는 투표 없이 유치도시 간 협의를 통해 2019년 대회는 광주가, 2021년 대회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개최되도록 했다. 개최지 발표 이후 한국과 헝가리 대표단들은 서로 격려하며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광주·전남지역 수영인과 체육계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적극 환영했다.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 부회장은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광주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차질없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수영연맹 임호택 전무는 "2019수영대회 개최를 계기삼아, 장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광주가 확정 발표된 19일 오후 7시30분께 응원행사를 위해 광주시청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양 팔을 치켜들어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기적으로 실업팀과 대학팀 창단을 비롯해 박태환 이후 유능한 스타선수를 발굴·육성하고 미래 우리나라 수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차근 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수영연맹 이남현 전무는

"앞으로 6년 후 대회에 출전할 지역 수영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선수층을 보다 넓혀야 하고, 부족한 훈련장

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檢, '전두환 미술품' 진위 분석

유명 예술가 48명 작품 300여점... 관련자 조사 검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와 자택 등에서 확보한 미술품을 종류별로 분류하면서 본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씨의 차남 재웅 씨가 21일 연희동 전씨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비자금' 문제를 둘러싼 자체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시공사 등에서 압수한 미술품은 그림 300여점과 다른 미술품 등 수백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미술계 전문가들을 통해 이들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구인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된 미술품에는 국내외 유명 예술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작가는 천경자·김종학·육근병·정일철·권여현 등이며 해외 작가는 이탈리아의 조카가 스타치

올리와 프란시스 베이컨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웅씨가 직접 그린 그림 7점과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사진 작품도 포함됐다.

이들 작품은 모두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파주 시공사에서 확보됐다.

검찰의 압수품 중에는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를 보존 실크스크린 판화도 있다.

이들 작품이 진위 확인을 거쳐 모두 진품으로 판명된다면 그 가치는 수십억~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진위 확인은 전문가 감정을 거쳐야 하므로 사흘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된 미술품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취급하는 H, G 갤러리 등과 전씨 일가의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중이며 전씨 측의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관여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변 인물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수습년 알고 지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웅씨가 21일 오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연합스

미술품 구매를 사실상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 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스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 출범

초대위원장 김동호... 해남 출신 박명성씨 등 20명 위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에 김동호(76) 부산국제영화제 명예 집행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민간위원 19명을 위촉했다.

해남 출신인 박명성(50) 신시키퍼니 대표는 오는 2014년 광주에서 열리는 동아시아문화도시 행사 예술감독으로 최근 위촉된 데 이어 문화융성위원회로 선임돼 그 역할을 주목받고 있다.

당연직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는 이날 인선 안료와 함께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부차관과 영화진흥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영화산업을 비롯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로 꼽힌다.

그 밖의 민간위원으로는 영화배우 안성기(61)씨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65)씨, 피터 바블로뮤

(68) 영국왕립아시아학회 이사, 연극배우 박정자(71)씨, 송승환(56) 성신여대 문화예술대학장, 작고한 소설가 박경리씨의 딸이자 김지하 시인의 부인인 김영주(67) 토지문화관 대표, 김성녀(63)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 위촉됐다.

또 박명성 신시키퍼니 대표와 만화 '만나라 이웃나라'의 작가인 이원복(67) 덕성여대 석좌교수, 소설가 권지예(53)씨, 계간 '솨대문학' 발행인 방귀희(56) 한국장애인예술인 협회장, 양민석(40)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한복라(66) 궁중음식연구원 이사장도 포함됐다.

박명성 신시키퍼니 대표는 맘마미아, 아이다, 사카고 등 대중성과 작품성 있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등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리는 제작자다.

박 대통령은 민간위원들에게 오는 25일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호 위원장, 안성기, 정경화, 박명성 대표

박준영 지사 F1개최권료 재협상 출국

22~24일 영국 방문

박준영 전남지사가 500억원에 달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권료 재협상을 위해 22일 영국을 방문한다.

박 지사는 3일 일정으로 F1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지먼트)의 영국 본사를 찾아 버니 에클레스턴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개최권료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개최권료를 깎아야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수차례 할인을



요구했지만 FOM은 F1을 치르는 20여 개국의 형평성 때문에 한국만 단독으로 할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는 FOM과의 재협상 끝에 개최비 중 TV중계권료, 원천세, 10% 할증료 등 230억원 가량을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 영평 → 어등산골포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종얼얼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림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1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운남동 2중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9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9억9천만 최저가49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중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1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례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 062)222-5105